

에스더 Esther

ESTHER

100 YEARS AFTER
BABYLONIAN
EXILE

SUSA = PERSIAN CAPITAL

MORDECAI
HADASSAH (ESTHER)
JEWISH COMMUNITY

KING OF PERSIA

HAMAN

CURIOUS 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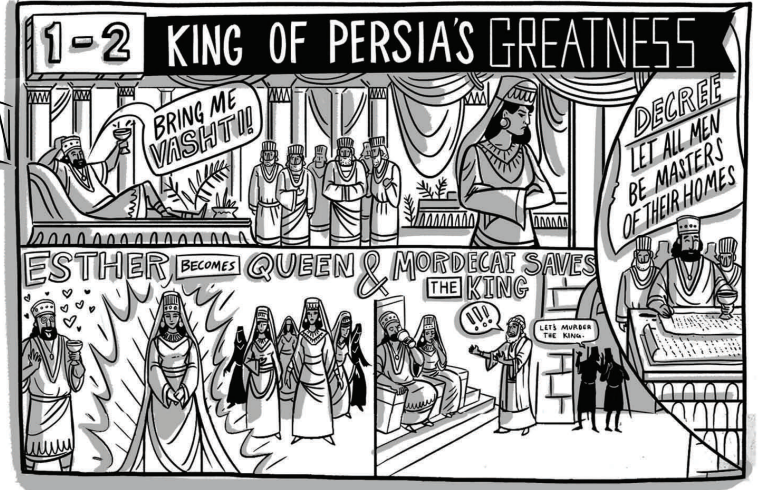
- GOD IS NEVER MENTIONED
- INVITATION TO LOOK FOR GODS ACTIVITY
- "COINCIDENCE" & IRONIC REVERSAL

MORAL AMBIGUITY:

- A LOT OF DRINKING, SEX AND MURDER
- VIOLATION OF **TORAH** COMMANDS

THE POINT:

DESPITE EXILE, "GODS ABSENCE," AND ISRAEL'S MORAL COMPROMISE, GOD HAS NOT ABANDONED HIS PROMISES



1.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아주 흥미 진진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100년이 지난 뒤에 시작됩니다.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이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유대인인 모르드개와 그의 조카 에스더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이 술취한 바보 정도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교활한 악당인 총리 대신, 하만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입니다. 원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이 작가는 아주 기가 막힌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심을 찾아보라고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 기법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연"이라는 아주 이상한 구절과 아이러니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이, 겉으로 보이는 장면 뒤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 페르시아 왕의 연회

이 책은 페르시아의 왕이 공들인 두 번의 연회로 시작되는데, 도합 187일 동안 열립니다. 모두 그의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창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에 나타나 그녀의 아리따움을 뽐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고, 이 술취한 왕은 화가 나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남자들이 각 집안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찾는 미인 대회를 주최합니다.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입니다.

3. 에스터와 모르드개의 등장

그러나 바로 여기서 에스터와 모르드개가 등장합니다. 에스터는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미인대회에 출전하고,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터에게 완전히 반해서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후로 삼습니다. 이 일들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르드개가 우연히 왕의 경비대 2명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터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개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 받습니다.

자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모두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4.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계획

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 되는데, 그는 사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가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 놓았고, 모두에게 하만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하만을 보고도 무릎 꿇기를 거부했고, 하만은 이로 인해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는 왕을 잘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날을 정하기 위해 하만은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Pur"라고 불립니다. 이 얘긴 잠시 덮어둡니다. 열 한 달 후, 아달월 십 삼 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과 왕은 그들의 끔찍한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술 잔치를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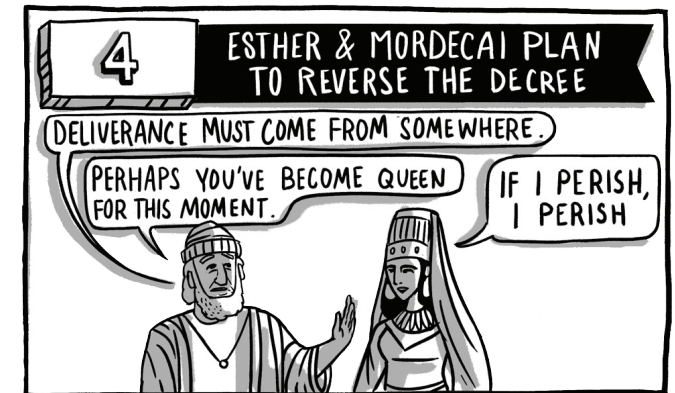


4. 모르드개의 확신과 에스터의 헌신

자 이제 초점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인 모르드개와 에스터에게 맞춰집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터가 왕에게 가서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청 없이 그 앞에 나아가면, 페르시아 법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결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의 확신을 말합니다. 만약 에스터가 잠잠히 있더라도 유대인들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에스터는 용기 있게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을 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5. 에스더의 첫째 잔치

이제 우리는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이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의 첫번째 잔치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둘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있을 아주 특별한 잔치에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만은 완전히 술에 취한 채 잔치를 떠나고 길에서 모르드개를 만납니다.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교수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르드개를 그 위에 매달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이야기는 뒤집힙니다. 왕은 우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왕은 잠을 청하려고 왕실의 역대 일기를 자기에게 읽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가 어떻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지 듣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만은 모르드개의 사형을 요청하기 위해 입궐합니다. 그 때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개를 공개적으로 치하하라고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모르드개를 왕의 말에 태우고 온 도시를 돌며 그를 칭송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개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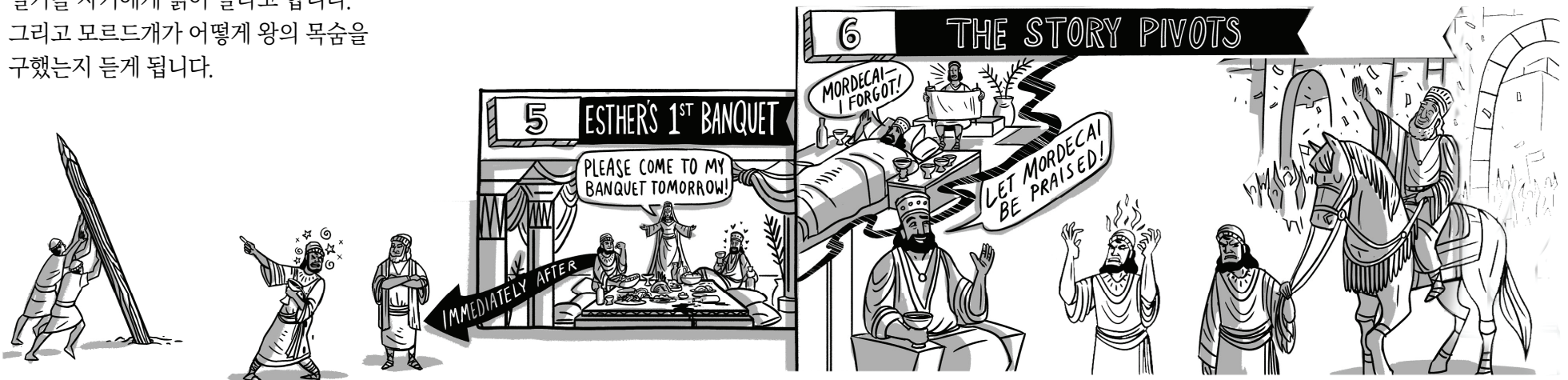
5. 에스더의 둘째 잔치

바로 다음 날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합니다.

에스더는 먼저 왕에게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고, 둘째로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자신을 죽이고,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개도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을 알립니다. 왕은 이미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고, 이 소식을 듣자 술김에 한층 더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만이 모르드개 때문에 만든 바로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러니 하জে도 이제 하만은 끔찍한 길을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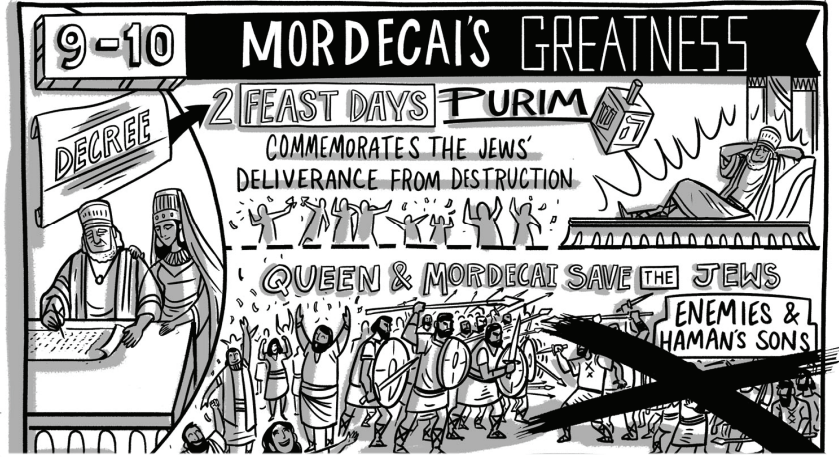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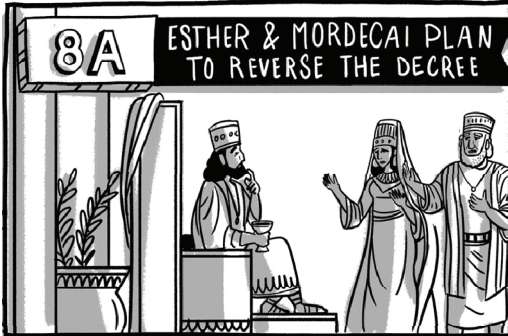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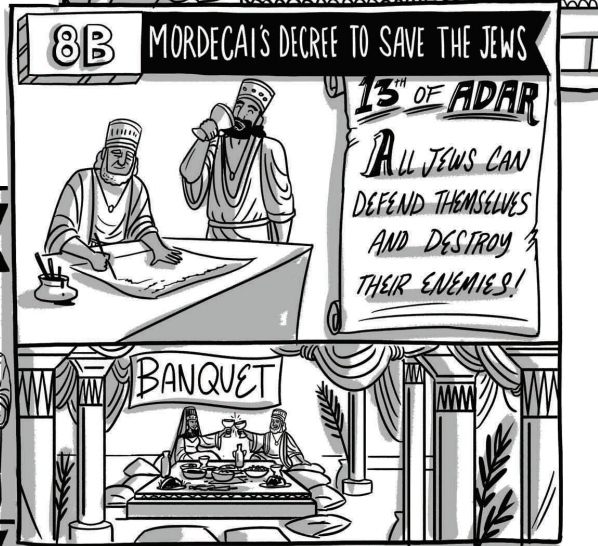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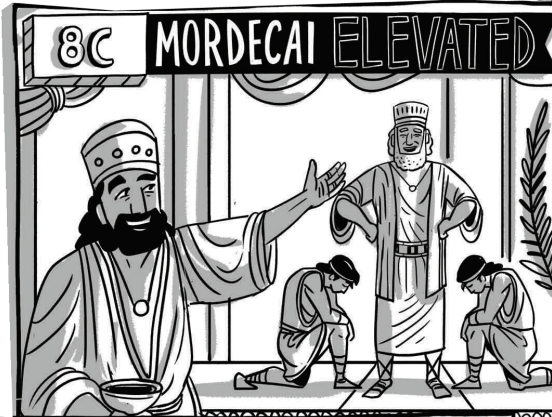
6. 극적인 반전—멸망에서 구원으로 / 원수를 멸하는 날로 바뀜

그러나 하만의 처형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 문제까지 해결하진 못합니다. 이제 초점은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그 법안을 뒤집으려고 계획하는 데에 맞춰집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이 이미 만든



조서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개에게 그 조서의 반대가 되는 조서를 쓰라고 합니다. 아달월 십 삼 일,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되기로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르드개, 에스더 그리고 모든 곳의 유대인들이 이 새 조서를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왕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침내 조서의 날짜가 다가왔고 유대인들을 그들의 원수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만의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페르시아 관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왕국 전체 어디에서든지 자신들을 죽이려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허락을 얻습니다. 결과는 기쁨과 축제로 끝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7. 부림절의 유래

또 이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또 다른 조서를 내는 것을 말해줍니다. 2일간의 부림절 축제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게 됩니다. 이 축제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 '부림(Purim)'에서 왔습니다. 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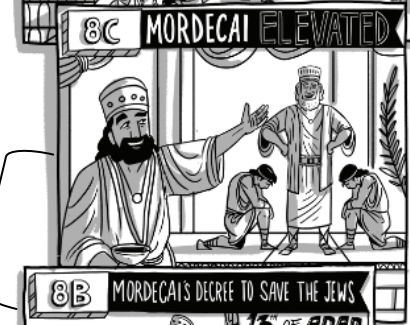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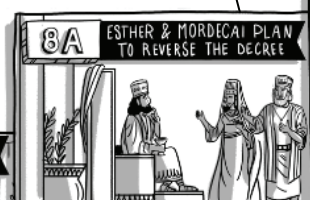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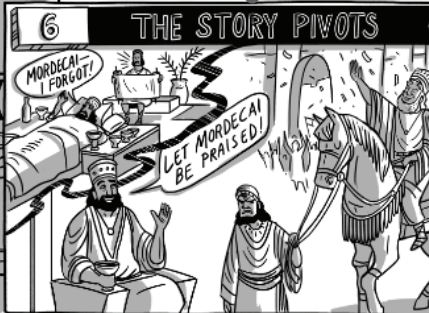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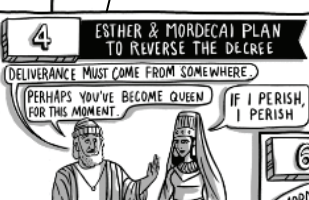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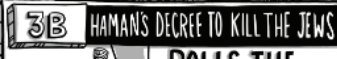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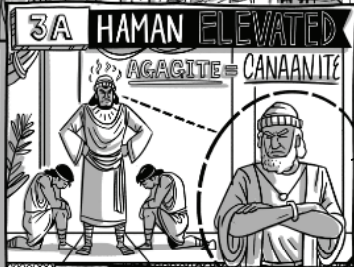
8. 에스터서의 전체 구조

에스터서의 이야기는 아이러니한 반전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한 반전으로 짜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의 영광과 축제들 그리고 조서들이(1-2장), 모르드개의 영광과 축제 그리고 조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10장). 에스터와 모르드개는 처음에 왕을 구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9. 등장 인물들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

이 책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등장 인물들의 도덕성이 모호하게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술취함과 분노 그리고 섹스와 살인이 넘쳐나고, 에스터와



그리고 하만의 승진과 칙령 그리고 연회가 (3장 A-B) 모르드개의 승진과 칙령 그리고 연회로 뒤바뀝니다 (8장 B-C).

그리고 그 중심에 에스터와 모르드개가 의논하는 장면과(4장, 8장 A) 에스터의 두 연회가 놓이는데 (5장, 7장), 이는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반전의 순간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역할을 합니다.

하만은 망신을 당하고 모르드개는 높임을 받습니다 (6장). 정말 멋진 구조입니다!



MORAL AMBIGUITY:

- A LOT OF DRINKING, SEX AND MURDER
- VIOLATION OF TORAH COMMANDS

THE POINT:

DESPITE EXILE, "GODS ABSENCE," AND ISRAEL'S MORAL COMPROMISE, GOD HAS NOT ABANDONED HIS PROMISES

모르드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명령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개와 에스터의 모든 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도덕적인 모범으로 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신뢰와 소망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결론

에스터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가?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보일 때, 그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그들조차 율법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신 것인가? 에스터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에스터서를 통해 보는 것은, 완전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타협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신실함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터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가? 또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겠는가?

ESTHER

1-2 KING OF PERSIA'S GREATNESS

9-10 MORDECAI'S GREATNESS

3A HAMAN ELEVATED

100 YEARS AFTER BABYLONIAN EXILE

8C MORDECAI ELEVATED

CURIOUS FACT:

- GOD IS NEVER MENTIONED
- INVITATION TO LOOK FOR GOD'S ACTIVITY
- "COINCIDENCE" & IRONIC REVERSAL

MORAL AMBIGUITY:

- A LOT OF DRINKING, SEX AND MURDER
- VIOLATION OF **[TORAH]** COMMANDS

THE POINT:

DESPITE EXILE, "GODS ABSENCE," AND ISRAEL'S MORAL COMPROMISE, GOD HAS NOT ABANDONED HIS PROMISES

3B HAMAN'S DECREE TO KILL THE JEWS

4 ESTHER & MORDECAI PLAN TO REVERSE THE DECREE

6 THE STORY PIVOTS

8A ESTHER & MORDECAI PLAN TO REVERSE THE DECREE

5 ESTHER'S 1ST BANQUET

7 ESTHER'S 2ND BANQUET

8B MORDECAI'S DECREE TO SAVE THE JEWS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 AFTER

